

# '90年代의 國際石油情勢 企業經營의 效果的인 對應戰略



## 〈李會晟博士와 인터뷰〉

最近 石油危機說 또는 向後的 油價 上昇說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90年代의 國際 石油情勢에 對하여 本誌는 인터뷰를 통하여 에너지經濟研究院 院長 李會晟 博士 (韓國에너지協議會 理事)의 見解를 들어 보기로 하였다.

李會晟 博士는 우리나라 資源經濟學 分野의 權威者로서 지난해 9月 CANADA MONTREAL에서 開催된 世界에너지會議(WEC) 第14次總會 技術會議에서 에너지와 工業發展에 關한 演說을 하여 많은 參席者들로부터 좋은 反應을 받은 바 있다.

(問) 제3의 石油危機說이 최근, 자주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答) '90年代의 세계에너지시장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여건에 놓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東歐圈의 개방, 쾌적한 환경수요의 증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3의 석유위기설도 그러한 요인중의 하나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유위기설의 배경은 주로, 세계석유의 需給構造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석유수요가 '80년대 후반기부터 고율로 증가함에 따라 공급능력의 한계를 우려케 할 정도입니다. 非OPEC 산유국들의 석유수출능력은 가까운 장래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非OPEC 산유국들의 많은 油田들이 머지 않아 한계유전에 도달할 것이고, 또한 국내 경제개발로 자체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OPEC 산유국을 살펴보다라도, 中東 OPEC이외에는 여유공급능력을 보유한 산유국이 없습니다.

아울러, 동구권의 최근 변화는 세계석유수급균형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原油生産은 政情불안으로 인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동구권의 개방은 석유수요의 증대를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국제유가는 미구에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問) '90年代에 예상되는 油價上昇의 모습을 1, 2차 위기때의 油價와 비교해서 전망해 주십시오.

(答) 현재의 수급상황 전개는 과거 1, 2차 석유위기 발생여건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급상황과 과거 '70年代의 수급상황간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시장, 특히 석유시장이 과거 20年동안 꾸준히 성장한 결과 수급정보의 확산, 경쟁의 확대 등 시장기능의 팔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으며 둘째, 산유국, 소비국 모두 합리적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

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수급불균형이 과거 스타일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OPEC이 2차위기시의 똘을 재현시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OPEC의 石油價格은 非OPEC 산유국의 원유개발·생산비의 상승율에 따라 완만하게 오를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볼 때, 이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이용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 에너지源들은 OPEC석유에 대하여 경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물론 예측불허의 돌발사태 때문에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돌발사태로 인하여 유가의 기본구조가 장기간 왜곡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는 돌발사태의 위협까지 시장의 기능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원유비축이 그러한 장치중의 하나입니다.

(問) 세계 석유수급이 향후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공급부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그 질문은 주로 中東 OPEC의 석유생산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中東 OPEC 산유국의 생산능력이 확대되어야 늘어나는 석유수요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中東 산유국의 경우, 공급능력의 한계성이란 것이 일반이 예상하는 바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능력은 석유가격(또는 투자규모)와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등 中東 OPEC 산유국은 향후 생산능력을 꾸준히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작년에 사우디는 自國의 확인 매장량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그 여파로 금년에는 OPEC 생산능력이 상당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OPEC 산유국과 소비국의 투자협력은 석유생산능력의 확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OPEC은

소비국의 精油部門 투자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비국은 그 댓가로 OPEC의 석유탐사·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問) 油價上昇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政策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答) 근래 저유가의 지속으로 인하여 동·서방을 막론하고 에너지절약 정신이 해이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86년 유가폭락이래 에너지원단위 감소추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단위감축 여지가 많은 개도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는 산업화의 초기현상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진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에너지절약은 수급구조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또한, 절약은 에너지수입 소요량은 물론 에너지공급 투자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경제가 갖는 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또한 환경공해를 줄이는 등, 국민경제·사회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소비전략과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석유존도를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여유가 있을 때 대체에너지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는 슬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대체에너지 개발은 최근 지구환경보호운동 확대에 부응한 값싼 클린 에너지개발·보급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중 가장 민감한 분야중의 하나가 원자력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은 드리마일, 체르노빌 등의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실효과, 산성비 피해가 극심해지자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의 안전도는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文 23페이지에 繼續)